

24절기와 기후

* 소한

일년중 가장 추운 시기로 접어드는 것을 예고한다. 중부지방에서는 영하 10도를 밑도는 강추위가 시작되는 등 소위 ‘대한이 소한집에 가서 얼어 죽는다’느니 ‘소한 얼음이 대한에 녹는다’는 등 이때부터 대략 한달간은 혹한이 계속된다.

* 대한

대체로 대한이 지나면서 일평균 최고 기온이 영상으로 오르기도 한다. 그러나 소한과 대한이 지나면 추위도 모두 끝난 것으로 생각하면 오판이다. 입춘 한파라는 것도 있고, 종종 대한 이후에도 매서운 한파가 있었다.

* 입춘

바야흐로 봄에 접어 들었음을 알리는 절기이다. 그러나 중부지방의 경우 실제로는 엄동지의 추위보다 더 심할 때가 있어 입춘 이후의 추위를 여한이라고 부른다. 이때가 되면 나날이 높아져가는 하늘의 상태와 바람에서 어딘지 모르게 봄의 분위기를 느끼게 된다.

* 우수

눈 대신에 비가 내려 얼었던 땅이 녹기 시작한다는 절기이다. 동풍이 불어 언땅이 녹고, 철새들이 북으로 날아가기 시작한다. 다만 기후표에 의하면 중부 지방에서는 이때 큰눈이 종종 내린 기록이 있다.

날씨가 풀리기 시작하면 하룻사이에 낮기온이 10도 전후로 오르기 때문에 해동에 따른 축대나 벼랑의 붕괴, 산사태나 낙석의 사고에 주의해야 한다.

* 경칩

절기상으로는 경칩 이후부터 만물이 소생하고, 겨울잠을 자던 냉혈동물들이 긴 겨울잠에서 깨어나 세상 밖으로 얼굴을 내민다는 절기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아직 늦추위가 도사리고 있어 동물의 경칩이라기 보다는 식물의 경칩기라고 보는 것이 어울리며, 실제로 동물의 경칩기는 대략 20일 정도 늦어진다고 보는 것이다.



* 춘분

겨울을 완전히 벗어나는 절기로서 낮과 밤의 길이가 같다.

바야흐로 만물이 약동하는 계절로서 옛날에는 이 날을 농경일로 삼아 채소의 씨앗을 뿌렸다.

* 청명

바람이 많은 계절로서 이 무렵에 산불의 발생이 많다.

동지로부터 1백 5일째 되는 이날은 바람이 많이 불어 화재가 잦아 불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여 찬밥을 먹는다는 풍습의 유래가 됐다.

* 곡우

곡식에 필요한 따뜻한 비가 자주 내린다는 절기로서 상춘의 계절인 늦은 봄으로 접어드는 시기이다. 날씨가 따뜻할 땐 초여름이 무색하다. 기온이 급격히 내려가기도 하는 등 날씨의 변동이 심하다. 꽃이 피고 뼈꾸기가 울기 시작한다.

* 입하

농촌에서는 못자리 가꾸기가 한창이며, 분꽃·등꽃·라일락 등이 피며 잠자리가

보이기 시작한다. 여름이 성큼 다가온 것이다. 그동안 건조했던 날씨에서 습한 날이 많아지는 계절이다. 방습과 방충에 주의해야 한다. 생활의 리듬이 깨져 과로하기 쉬우므로 주의를 요한다.

*** 소만**

산과 들에는 온통 푸르름의 일색으로서 초여름과 성하의 중간쯤되는 절기이다. 보리가 여물어 황금빛으로 물들기 때문에 만추의 계절이라고도 한다. 소만을 전후하여 남해안 지방은 비가 잦고 때로는 초여름 장마기로 접어든다.

*** 망종**

밀이나 보리와 같은 까끄라기가 있는 작물의 열매가 성숙하여 이를 수확하는 것을 뜻한다. 이 때부터 보리를 베고 모내기가 한창인 절기로서 농촌이 가장 바쁜 때이다. 이후부터는 장마의 전조로서 구름이 자주 끼고 남부 지방에서는 비가 자주 오며, 중부 지방은 후덥지근한 여름 날씨를 보인다.

*** 하지**

일년중 낮이 가장 긴날로서 밤보다 3분의 1가량 더길어 하지가 지나면 낮의 길이가 토끼 꼬리만큼 짧아진다고 표현했다. 태양이 우리와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고 낮이 길어 가장 더울 것으로 생각되지만 실제로는 땅이 충분히 더워지는 8월이 가장 덥다. 기상학적으로는 구름이 많은 계절로 접어든다.

*** 소서**

본격적으로 더운 계절로 접어든다. 대개 소서 무렵은 장마기에 해당되어 큰 더위가 없는 것이 보통이다. 아직은 가장 더운 때가 아니라고 해서 소서라고 하고, 일년중 가장 더운 무렵을 대서라 한다. 그러나 장마 기간이 짧거나 늦어지면 소서 무렵부터 더위가 심해진다.

*** 대서**

대한에서 따져 꼭 6개월이 되는 날이다. 대서를 넘기면서 더위가 본격도에 올라 대서 이후 20여 일 동안이 일년중 가장 덥다.

우리 나라의 경우 태평양의 오키사하라섬 부근에 뿌리를 둔 아열대 고기압이 한반도까지

확장해 오면 무더위와 한발이 계속된다.

*** 입추**

가을의 문턱에 들어선다는 입추는 대개 말복 이전에 드는 경우가 많다. 입추는 삼복 더위가 절정에 이르는 시기에 찾아들며, 새벽녘의 기온 하강률이 커지며 산위에서의 기온 변화폭이 커진다.

이때부터 동지 때까지는 절기가 산위에서 시작돼 점차 평지로 내려온다. 즉 실제의 기후보다 절기가 약 보름 가량 앞서게 된다.

*** 처서**

더위가 물러가고 가을로 들어선다. 하지를 넘긴 태양의 고도는 계속 낮아져 눈에 띄게 밤이 길어지고, 쓰르라미가 울고, 벼가 익는다. 또한 마루끝에 들어오는 햇볕도 길어져 있음을 느끼게 한다. 그러나 해에 따라서는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기도 한다.



*** 백로**

밤에 기온이 내려가 대기중의 수증기가 엉겨 이슬이 맺히기 시작한다. 추석이 되면 낮에도 서늘하고 만물이 무르익는다. 옛사람은 이 시기를 5일씩 나누어 기러기가 날아오고, 제비가 돌아가고, 못새들이 먹이를 저장한다고 했다. 이 시기는 쾌청한 날씨가 계속되나 간혹 태풍이 불어와 벼농사에 큰 피해를 주기도 한다.

*** 추분**

태양은 추분점(황경 180도)에 이른다 '더위도 추위도 분절까지'라고 해서 아무리 늦더위가 심하더라도 추분이 되면 본격적인 가을로 들어선다. 밤은 길어가고 풀벌레 소리가 퍼지는 추야장의 계절이다. 낮과 밤의 길이가 같은 가을의 중간으로서 여름을 정리하고 가을을 준비할 때이다.

*** 한로**

공기중에 있는 수증기가 식어 이슬이 되고, 대지의 냉각으로 인하여 서리가 되기 직전까지 차가워진다는 것이 한로의 뜻이다. 가을 옷가지를 손질해서 갑자기 내려가는 기온에 대비한다든가, 본격적인 난방에 들어가기 전에 월동 장비 등을 점검하는 등 만일의 기온 하강에 따른 준비를 해두는 것이 좋다.

*** 상강**

된서리가 내리고 첫얼음이 얼며, 단풍이 들고, 낙엽이 지기 시작한다. 가을과 겨울이 엇갈리는 시기이다. 이 무렵의 기온은 한차례 곤두박질 쳤다가도 한동안은 평년 기온을 유지하기도 한다. 겨우살이 용품을 준비할 때이다. 국화가 만발하고 기러기가 날아온다.

*** 입동**

냉기가 벌써 두어차례 지나갔기 때문에 겨울을 실감하게 되며, 대개 추위가 이때쯤 시작된다. 낙엽을 몰아가는 북서풍과 된서리가 차례로 나타나 겨울다운 기분을 느끼게 한다.

*** 소설**

눈이 내린다는 소설은 '소설추위는 꾸어서라도 한다'고 해서 이 무렵이면 으레 첫 추위가 몰려온다. 소설이니 대한이니 하는 것은 기상 현상의 양적인 표현으로 이름이 붙여진 것으로서 추위가 몰려오는 것과는 달리 눈이 많이 오지는 않는다.

*** 대설**

이십사 절후의 21번째 절후로서 12월 7일이다.

산간 지역은 이 무렵부터 큰 눈이 내리기 시작한다. 소춘(小春)이라하여 초겨울속의

따뜻한 날이 될 때가 많아 체감 온도는 낮아도 우리의 몸이 냉기에 어느 정도 익숙해지는 시점이기 때문에 대설의 추위는 그리 위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 동지**

천문학상 태양이 동짓점에 이르고, 지구상에서 볼 때 우리와 가장 먼 거리인 남회귀선에 도달한다. 따라서 중위도에서는 낮시간이 불과 9시간 34분에 지나지 않아 일사량이 가장 적은 시기가 된다. 대략 이 날로부터 20일 정도 늦어 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기후학적으로 이때를 전후해 동지 한파가 있다. ㉞

24절기

음력일	절 기	양력일자
12월	소한(小寒)	1월 5일경
	대한(大寒)	1월 20일경
1월	입춘(立春)	2월 4일경
	우수(雨水)	2월 19일경
2월	경칩(驚蟄)	3월 6일경
	춘분(春分)	3월 21일경
3월	청명(清明)	4월 5일경
	곡우(穀雨)	4월 20일경
4월	입하(立夏)	5월 6일경
	소만(小滿)	5월 21일경
5월	망종(芒種)	6월 6일경
	하지(夏至)	6월 21일경
6월	소서(小暑)	7월 7일경
	대서(大暑)	7월 23일경
7월	입추(立秋)	8월 8일경
	처서(處暑)	8월 23일경
8월	백로(白露)	9월 8일경
	추분(秋分)	9월 23일경
9월	한로(寒露)	10월 8일경
	상강(霜降)	10월 24일경
10월	입동(立冬)	11월 8일경
	소설(小雪)	11월 22일경
11월	대설(大雪)	12월 7일경
	동지(冬至)	12월 22일경